전남교육청 조직 개편 미래·독서교육에 역점

도의회 임시회 개편안 의결
미래교육과·독서인문팀 등 신설
3국 2관 1단 15과 64팀 체제로

전남교육청이 '전남교육 대전환 실현'을 기치로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 본청 조직은 기존 '3국 2관 1단 14과 61팀'에서 '3국 2관 1단 15과 64팀'으로 바뀐다.

도 교육청은 개편안을 통해 주요 핵심의제를 중심으로 기능을 재배치, 유기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중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국 미래인재과를 정책국 '미래교육과'로 개편, 미래교육의 방향을 정립해나가도록 하고 독서인문교육팀을 신설해 독서가 전남 미래교육의 기반이 되도록 독서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책국 혁신교육과는 '교육자치과'로 개편, 민·관·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전남형 교육자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국에 신설하는 '진로교육과'는 권역별 진로진학상담센터와 진로·진학·직업의 맞춤형 통합 지원 체제를 담당케 했다.

이 밖에 팀 신설 등을 통해 빅데이터, AI 학습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과 방과후돌봄 등 주요 현안을 위한 기능 강화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직속기관은 전체적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관명에 '전라남도교육청'을 붙여 교육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토록 하는 한편 핵심정책인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거점도서관의 학교도서관 지원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학교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학교 환경위생 및 급식업무 지원을 위해 보건급식팀을, 학교 정보업무 지원을 위해 정보화지원팀을 확대했다.

학교폭력 전문인력을 증원해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및 화해·조정 기능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개편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우리 전남 학생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역사회 및 교육공동체와 함께 전남교육 대전환을 향해 더욱 힘차게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TF' 운영 등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추진해온 전남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 개선 팔 걷었다

작업환경개선 20명 TF 구성
급식종사자 건강 검진 지원도

광주시교육청이 각급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조리실 작업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급식조리실 작업환경개선 TF(이하 TF)를 구성했다. 〈사진〉

이는 지난 2021년 2월 급식종사자의 폐암이 직업성질병으로 처음 인정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조리 중에 발생하는 조리흄이 급식종사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급식조리실 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TF는 안전총괄과, 재정복지과, 교육시설과, 교육지원청(급식팀, 시설팀),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TF는 조리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 전체 학교 후드성능평가 ▲ 광주시교육청 맞춤형 환기설비 기본설계지침 마련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조리실 환기설비 100% 개선 달성 ▲급식 조리기구(전기인덕션, 고추분쇄기) 교체 등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는 성과를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근무경력 5년 이상인 급식종사자에게 폐암 검진을 지원한 바 있다. 향후 검진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각급 학교 급식조리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하고 노조와도 지속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대 '디지털전환 융합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

7개 대학 30팀 참여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 LINC3.0사업단은 최근 '제2회 함께하는 디지털전환 융합아이디어 공모전'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번 '제2회 함께하는 디지털전환 융합아이디어 공모전'은 광주대를 비롯해 대구한의대, 경남정보대 LINC3.0사업단 등 총 11개 기관 공동주관으로 인문사회분야(문화예술 포함)와 이공계 분야 지식이 융합된 테마를 주제로 아이디어를 공모,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공모전에는 총 7개 대학 30팀이 참여했으며 광주대에서는 'K-커피프로세싱용 발효스타터 개발' 아이디어를 공모한 GSI-LAB팀(식품영양학과 최준민, 강현진, 문세희, 호텔외식조리학과 김권채, 주진규)이 대상을 받았다.

RUSH팀(컴퓨터공학과 박지원, 양영규, 홍병표, 황규현, 이명은)은 '시각 장애인용 길잡이 지팡이', RIA팀(컴퓨터공학과 배량현, 권형택, 이상민)은 '요양보호사 매칭 및 케어시스템'으로 최우수상 차지했다. 8혼사안팀(간호학과 송송희)은 '스코 도어락', better crew팀(항공서비스학과 조미정, 강시형, 강다은)은 '내 손안의 공항'으로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노선식 LINC3.0사업단장은 "LINC 3.0 사업 수행 대학 간 공유·협력사업 추진 의지의 구체화와 학과 간, 일반대·전문대 단위 경계를 넘는 문화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공유·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학·기업·지역사회 발전 교류
조선대 링크 사업 성과 공유회

조선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기업-지역사회 연계성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 교류의 장인 '2022 조선대학교 LINC3.0사업 성과공유회 CSU-LINC FAIR 'HYPER-SRT station'을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산학협력의 이해를 공고히 하고 한 해의 사업성과를 공유하면서 4차산업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산학협력 방향 제시 및 고도화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혼용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산학연협력 우수기업, 우수교원, 우수학생, 우수부서, 우수직원 시상식 및 캡스톤디자인(종합설계) 경진대회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찾은 몽골과학기술대…교환학생 교류 등 협의

동신대학교는 최근 몽골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과 몽골 울란바타르시의 사회복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대학을 방문해 교환학생 교류, 단기연수 추진 등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동신대 국제교육원과 몽골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몽골 울란바타르시 사회복지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신대 제공〉

전남교육청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시범운영…학령인구 감소 대응

전남교육청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모델인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전남도교육청은 학생 유출에 대응하고 미래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1곳을 선정해 시범운영 한다고 13일 밝혔다.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는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의 미래교육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며 교육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성을 부여받아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게 된다.

도 교육청은 선도지구에 3년 동안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교육거버넌스를 통해 지역교육 의제도 발굴한다.

또 학교와 교육지원청 지역교육생태계는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 지원,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위해 협의하며 도교육청은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최정용 전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율형 미래교육선도지구 1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미래학교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권한을 과감하게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이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